

어린이책 들춰보기

하느님, 제 기도를 들어보세요

M. 라이스트 지음 / 강성위 옮김
서광사 / B5 / 64면 / 4000원

“좋은 하느님, 저는 반디예요. 맑은 날씨와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와 제 동생 슬기 그리고 엄마 아빠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멘”
신앙생활은 곧 기도하는 생활임을 강조하는 저자는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진실한 기도는 시작된다고 말한다. 「기도하고 싶어요」 「아침 · 저녁 기도」 「식사때의 기도」 「제 부탁을 들어보세요」 등의 항목에서 다양한 기도문을 소개, 어린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려는 부모나 신앙가진 어린이들이 참고하도록 했다.



사과 하나가 지구를 흔들었다

박상재 지음
대교출판 / A5신 / 228면 / 3000원

근대과학의 발전에 획기적인 영향을 끼쳤던 위대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동화로 엮었다. 주인공 ‘실천특공대’는 타임머신을 타고 뉴턴과 갈릴레이, 하비와 코페르니쿠스, 그리고 케플러 등의 과학자들이 살았던 시대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지동설, 만유인력, 해부학 등 평소 궁금했던 과학현상을 그들을 직접 만나 물어본다. 지독한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무당 어머니 밑에서 자란 케플러, 인체의 신비를 밝히기 위해 사형수의 시체를 훔친 하비, 반신불구의 파스퇴르 등 그들의 어려웠던 삶과 발명 · 발견에 얽힌 뒷얘기를 통해 과학과 보다 친숙해지게 한다.

어린이 과학공부 길잡이

박종규 엮음 / 이명선 그림
지경사 / A5신 / 224면 / 3000원

교과서에서 복잡한 도식과 딱딱한 설명으로 배웠던 자연과학이나 인체의 구조 등 과학적인 현상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꾸며쓴 과학동화. 주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림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같은 제목으로 「소년조선일보」에 최근 연재했던 것을 한데 묶었다. 「함께 배우는 생물의 세계」 「신비로운 생물의 관찰」 「재미있는 자연 실험」 「생생한 지구과학 탐험」 등 모두 4부로 구성, 버겁게만 느껴지던 과학의 세계를 흥미있게 열어보인다.



열쇠목걸이를 찬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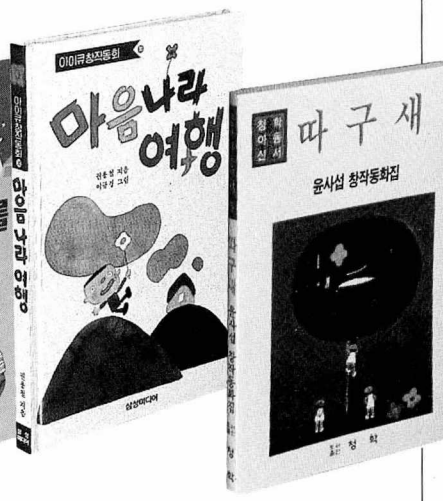
이영호 지음
윤성 / A5신 / 212면 / 2500원

홀아버지 밑에서 외롭게 사는 아람이. 아람이의 목에는 고모집 열쇠와 자기집 열쇠 두 개가 목걸이처럼 매달려 있다. 유치원이 파하면 이웃의 고모집에 갔다가 저녁 늦게 집으로 가야 하기 때문. 아람이는 자기를 귀여워해주는 유치원 선생님을 엄마라 부르며 따르는 바람에 선생님을 당혹하게 만든다. 이혼한 부부의 자녀문제를 가슴 찡하게 그린 표제작 「열쇠목걸이를 찬 아이」를 비롯해 「도둑맞은 장난감」 「알라리 행진곡」 「씨우는 형제」 등 달라지는 사회환경 속에서 자라는 요즘 어린이들의 성장모습이 때론 서글프게 때론 대견하게 그려져 있다.

마음나라 여행

권용철 지음 / 이규경 그림
삼성미디어 / A5신 / 92면 / 2500원

부지런해지고 싶어하는 소망과 게을러지고 싶어하는 마음, 참말을 하려는 의지와 거짓말을 꾸며대고 싶어하는 불순한 마음 또 사랑과 미움, 온화함과 포악함이 끊임없이 상충하며 밀고당기는 세계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란 곳이다.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이러한 본능들을 바람직하게 조절하고 인간답게 가꾸어나가는 데는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필수적. 지은이는 런지부와 른으게, 랑사와 움미, 품배와 지차란 이름의 주인공들을 통해 우리가 버려야 할 나쁜 마음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따구새

윤사섭 지음
청학 / A5신 / 206면 / 3300원

「산의 이야기」 「목각인형」에 이어 펴낸 작가의 열번째 창작집. 교통사고로 갑자기 엄마를 잃게 된 미나는 아버지마저 해외근로자로 떠나 있는 바람에 할머니의 손에서 길러진다. 그런 미나에게 엄마가 살아계실 때 가본 적이 있는 양장점은 좋은 쉼터가 된다. 엄마랑 똑같은 옷을 입은 마네킹이 있기 때문이다. 엄마를 쫓 빼뺏은 그 마네킹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미나는 며칠후 놀랍게도 답장을 받는다……. 한 어린이의 천진한 세계와 양장점 주인의 따뜻한 마음이 잘 그려져 있는 「미나의 마네킹」 외 12편의 창작동화가 실려 있다.

지구를 살리는 50가지 방법

존 자브나 지음 / 노혜숙 옮김
현암사 / A5신 / 208면 / 2800원

더이상 방관할 수 없을 만큼 오염된 지구, 그리고 갈수록 파괴되어가는 생태계… 심각할 대로 심각해져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어린이들이 실천할 수 있을 만한 50가지의 일들을 모아 소개했다. 무심코 내버리는 쓰레기, 알게 모르게 흘려보낸 물, 간편하다며 쉽게 이용하는 1회용 컵 등 환경오염은 이같이 작은 무심결들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일깨우면서, 재충전 건전지를 사용한다든가,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며, 뜨거운 물도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알송이의 이상한 모험

정원석 지음
대교출판 / A5신 / 252면 / 3000원

의학박사이자 아동문학가인 저자가 중국고서 산해경을 비롯해 옛문헌들의 해박한 지식을 기저에 깔고 어른들의 세계를 재치있게 풍자해 놓은 동화. 알송이는 걱정도 많고 겁쟁이지만 꿈 많고 용기있는 어린이. 어느날 우연한 기회에 알송이라는 그림자친구를 만나 생각지도 못한 여행길에 오르게 된다. 전세일(백화점)사장, 고충건(건설회사) 회장, 기상천(대학교수)박사, 사재기(무역회사)사장 등과 함께 알송이 일행은 네모나라, 여인섬, 상아탑섬, 황금나라 등 희안한 나라를 둘러보며 세상을 배우고 깨닫게 된다.

아리송네반 깨비들

이슬기 외 지음

문공사 / A5신 / 208면 / 2500원

쫄구머리에 빠드르니, 짓곳은 장난까지 꼭 닮은 쌍둥이 형제 영태와 영규, 선생님은 물론 친구들도 누가 누군지를 구분못해 이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아리송형제. 별달없이 잘 공부하던 이 교실에 아리송형제가 전학오고부터는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진다. 이밖에도 장난꾸러기 단짝 (도)깨비와 (두)깨비, 늘 깜박 잊는 나깜빡 등 사고뭉치이지만 언제나 인기투표는 1위인 알개들이 펼쳐보이는 신나고 재미있는 이야기. 김상삼·류근원·박상재·소중애·송재찬·신동일·이슬기·임옥순·조한순·유영선 등 17명의 작가선생님이 들려준다.

나도 훌륭한 민주시민이에요

이슬기 지음 / 서영수 그림

지경사 / A5신 / 188면 / 3000원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각자의 규범들 중 가장 으뜸인 것이 헌법. 어렵게만 여겨지는 헌법의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주변의 실례를 들어 알기쉽게 설명해 놓았다. 「헌법이란 무엇인가」「이런 일을 요구할 수 있다」「세금이란 무엇인가」「바른 선거법을 알자」「행정부에서 하는 일」 등 모두 29개의 항목에서 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요소 및 지켜야 할 의무, 그리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친절하게 설명, 건전한 민주국민이 되는 바탕을 익히도록 했다.

新악동전

송언 지음

웅진출판 / A5신 / 272면 / 4000원

‘가난하고 배운 것 없이, 그러나 먹고 살아야 할 무지렁이들의 이합집산의 장’이라고 작가가 표현한 국민동의 제삼국민학교에 다니는 어린 주인공들을 통해 주변환경이 자라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황폐화시키고 멍들게 하는지를 일곱편의 연작동화를 통해 충격적으로 드러내 보인다. 여러해 동안 작가가 몸담았던 교단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씌어진 이 소설은 온갖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의 이면에는 어른들의 부도덕함과 사회전반의 무관심이 감춰져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내일은 밝다

김병렬 엮음 / 이명선 그림

지경사 / A5신 / 190면 / 3000원

서울사대부속국민학교 교장으로 있는 저자가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사람들의 성공담을 모아 엮었다. 세상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좋은 환경에서 순탄하게 자라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을 어린이들에게 일깨우면서 작은 난관에도 쉽게 좌절하는 연약한 어린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준다. 8살때 장티푸스를 앓아 농아가 되었지만 훌륭한 화가로 성공한 윤보 김기창 화백, 장애자란 온갖 사회적 편견을 딛고 대법관까지 오른 김용준 전서울가정법원장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뜻을 이뤄낸 44명의 성공담을 소개했다.



하나님, 이건 비밀인데요

데이비드 헬러 지음 / 강홍립 옮김

동아출판사 / A5신 / 130면 / 3200원

미국의 종교학자이며 어린이문제전문가인 저자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조사하며 모았던 편지 묶음. 「크리스마스가 이처럼 싱겁게 끝날 줄 알고 만드셨나요?」「여가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세요, 하나님」「천국에도 양배추를 키울 텃밭이 있나요?」「당신은 대형텔레비전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보시나요」 등 7~10세 어린이들이 비밀이라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들에는 경이롭고 웃음을 자아내는 어린이다운 감정이 넘쳐흐르는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짐작해볼 수 있게 한다.

퀴즈여행

이미란 엮음

금유출판사 / A5신 / 222면 / 2500원

5개의 굽을 사이좋게 나누어 열사람이 2분에 먹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한 개의 굽을 먹는 데는 몇분이 걸릴까. 답은 4분. 왜 그럴까. 교과서에서 배운 산수나 자연과목의 이론을 응용하면서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꾸몄다. 책 곳곳에 퀴즈나 퍼즐에 관련된 국내외의 토막상식을 실어 다방면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했으며, 알쏭달쏭 퀴즈란을 따로 마련 어린이 수준에 맞는 난센스퀴즈도 소개하고 있다.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동안 산수나 자연과목에 쉽게 친해지게 한다.

신이 아버지

강정규 지음

대원사 / A5신 / 224면 / 2500원

「소년」과 「현대문학」에 각각 동화와 소설이 당선되어 등단, 한국아동문학상을 수상하였던 작가의 세번째 창작동화집. 바닷가 개펄에서 잡혀와 짓곳은 꼬마들에게 가족들을 잃고 자신은 다리가 세개나 부러진 채 버려진 아기계의 이야기를 통해 도시의 황폐함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보이는 「아기계의 여행」을 비롯해 「돌」「민들레」「아버지의 아버지」「꾸러기의 그림일기」 등 13편이 실려 있다. 쇠뿔에 구운 따끈한 돌, 외진 아파트 옥상에 홀로 핀 민들레 등 잊혀져가고 구석진 곳에 보내는 작가의 따스한 마음이 작품마다 스며 있다.

신비의 비밀여행

이미란 지음

금유출판사 / A5신 / 222면 / 2500원

6톤 무게 이상의 트럭은 지나갈 수 없는 다리에 4톤이나 나가는 20m짜리 쇠사슬을 실은 3톤트럭이 지나가려 한다. 트럭과 쇠사슬의 무게는 7톤, 다리를 건널 수 없는 무게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은 쇠사슬을 땅에 내려 끌고가면 무게가 분산되어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성냥개비를 이용한 알쏭달쏭퀴즈 비슷한 두 개의 그림을 놓고 틀린 곳을 찾는 주의력테스트, 컴마다 물의 양을 달리 하고 만든 컵음악 등 난이도를 달리하는 갖가지의 퍼즐들이 99개가 소개돼 있어 사고력 형성에 도움을 준다.